진짜로 믿는다면 지금 죽는대도 싱긋이 웃을 수 있다

☞ 21면에서 계속

될 수 있다면 자유인이 될 수 있죠.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열쇠를 가질 수 있고, 즉 말하자면 여래장이 되겠죠. 그런데 뭐가 답답하겠습니까?

가족 부양 능력 부족에 자책감이…

질문 요즘 경제가 힘들어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들은 학비 마련한다고 힘들게 아르바이트한다고 뛰어다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가족들 부양을 제대로 못 한다는 자책감이 들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는지요.

답변 여러분은 때로 '무슨 죄가 많아서 이 세상에 나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나.' 하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축생이나 아귀나 모든 미생물까지도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미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왜 한탄을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어떻게 좀, 지혜가 있고 능가할 수 있는 폭이 넓으면 좀 낫게 지내고, 폭이 좁고 그릇이 작으면 아주 피곤하게 살고 이것뿐이지,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나라 하는 거 아닙니까.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식구들이 다 부황이 나서 굶어 죽게 되었는데 자식이 하나 나가서 '내가 죄를 걸머지더라도 할 수 없다.' 그러곤 그냥 훔쳐 왔어요. 훔쳐 왔는데 그게 이 보이는 데서는 큰 죄라고 데려가서 가두겠죠. 그러나 부처님 법에서는 '야, 참 그래도 지혜가 있어서 그거라도 훔쳐서 먹여 살렸으니 너 참 장하다.' 외려 이래 준다구요. 꽉 막혀서 도대체 오글락노글락이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도둑질을 정말로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넓은 마음이 있다면 스스로 그런 거를 갖다가 그래도 생명은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소립니다.

어떤 사찰에서 이런 예가 있었죠. 스승이 지쳐서 아주 죽게 됐어요. 죽물이라도 마시면 토해 버리고 영 일어나질 못했죠. 다 죽는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막내 제자가 호미하고 소쿠리를 들고선 나가요. 그래서 "너 어디 가니?" 그러니까 "그냥 어디 좀 갔다 올 거야." 그러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렁이를 그냥, 예전엔 지렁이가 많았죠, 아주. 이만큼씩 한 지렁이를 골라서 소쿠리에다 담아서 씻어선 소금을 넣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산에다가 솥을 걸어 놓고선 폭 다려서 한 솥을 해서 그냥 물에다 담가 놓고는 갖다 드리는 거죠, 데워서. 그 스승이 한 솥을 다 잡숫고 나더니만 "아휴, 그게 뭔지 난 이제 살았다." 이러고 일어나시거든요.

그런데 그 사형들이 "너는 살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생을 했으니 넌 무슨 죄를 받으려고 그러느냐." 하고 야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죄가 있다면 내가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사람이 생각하기에 달렸지 죄가 어디에 있겠느냐고, 부모가 죽게 돼서 살렸는데 뭐가 죄겠느냐고, 양쪽을 다 살렸지 않느냐고 그러더래요. 양쪽을 다 살렸다!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살리고 부모는 부모대로 살렸다 이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지렁이가 우리 같은 스님네들한테 어떻게 공양을 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스님들을 만나서 자기 몸을 공양을 바쳐서 진화돼서 탄생을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스님한테 가기 전에 벌써 진화는 됐다 이거야. "그랬으니 그 수없는 지렁이를 살렸고 우리 스님을 살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살생하지 말라고만 그러면 축생들이나 아귀나 이런 것들이 몇천 년을 기다린들 어떻게 스님 입에 들어올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 줬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것을 죄라고 하느냐." 그러더라는 얘기죠.

> 수억겁 광년을 나를 이끌어온 나의 장본인, 나의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 잘되는 것도 안되든 것도, 죽어도 살아도 거기 놓으세요.
> 모든 것이 거기서만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 마음이 좁으냐 넓으냐에 따라서…, 마음은 마음대로 쓰라고 마음입니다. 너 마음대로 써라.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주체를 못 하고, 악하게도 쓰고 선하게도 쓰고 뒤죽박죽이 되죠. 그런데 뒤죽박죽하지 말고 원칙대로 살아라. 진짜 착을 두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내 그릇을 내가 파악하고 건너뛰어라 이거거든. 물을 건너뛸 때에도 내 다리가 그만큼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봐서 건너뛰어야지, 개천은 넓은데 내 다리는 거기 반도 안 가면서 건너뛰다간 물에 빠져 죽죠. 그렇게 번연히 알면서도 건너뛰다가 빠져서 허덕거리는 거를 어떡합니까? 부처님인들 어떡합니까, 그거?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살다 보면 내가 이 세상에 생긴 게 참 고맙구요. 아무리 잘생겼든 못생겼든, 또 잘살든 못살든 '내가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공부라도 하게끔 인연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고마운가. 또 우리가 수없이 돌아가면서 별의별 일이 다 생기고 그러는 까닭에…, 돈 걱정도 없고 옷 걱정도 없고 먹는 거 걱정도 없고, 돈 쓸 때는 그냥 척척 줘서 다 쓰고, 이렇게 해서 기른 아이가 나가서 잘 이끌고 살 수 있을까요? 고생도 해 보고 배도 고파 보고 망치질도 해 보고, 그 아픔을 겪어 본 사람이라야 그 부하를 다 이끌고 살 수 있는 거죠.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남이 배고픈 걸 몰라요. 그것까지 생각 못 하죠. 모두가 그렇습니다.

일체 다 그런 거를,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자식이 그냥 사고가 나서 죽었다, 내 자식이 금방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움직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아이, 하등 상관없구나.' 이렇게 생각되면 그 도리를 웬만큼 아신 거예요.

누가 사랑을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이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다 하되 착을 두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모습이 금방 이 자리에서 죽었는데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느냐, 뛰지 않느냐고 자기를 검증해 볼 때, 딴 사람 죽었다고 한 거나 자기 자식 죽었다고 한 거나 자기 부모가 죽었다고 한 거나 아무 상관이 없으면 됐어요. 다른 건 다 착을 떼어도 자식 착은 떼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래 착을 떼지 못하는 걸 진짜로 떼게 한 예가 있죠. 어느 스님이 입산을 하러 오니까 부처님이 "너 권속과 재물을 다 버리고 왔느냐?" 하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다 버리고 왔습니다." 했는데도 "권속을 짊어지고 와 놓고 다 버리고 왔다고 하느냐. 짊어진 것을 다 버리고 오너라." 이러시더라는 거죠. 마음속에 잔뜩 넣고 왔는데 그게 뭐가 놓고 온 거야? 그리고 재물은 집에다가 다 그냥 놓고 식구들 다 살게 해 놓고선 왔거든. 그러니까 "재물은 다 갖다가 집에 식구들 수대로 다 안겨 놓고 왔는데 무슨 그걸 다 버렸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럼 다 버리고 오겠습니다." 하고 그 재산 나누어 준 거를 다 그냥 불에 태우려고 하고 또 패물은 다 물속에다 넣으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공중에서 소리가 나기를 "얘야, 그렇게 버리라는 게 아니다." 이러더라는 거지. 하하하. "그렇게 버리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라. 버리되 그렇게 버리라는 게 아니니라." 하더라는 거지. 그러니 얼마나 묘한 법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누가 아프더라도…, 이게 참 묘한 이치가 있는데요, 이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젠가는 한 번 죽을 거, 허허허, 하여튼 죽든지 살든지 걱정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생사도 벗어납니다.

얼마 전 여객선을 탔는데

질문 얼마 전 여객선을 탔는데 배가 풍랑에 심하게 흔들리는 바람에 순간 침몰사고가 나는 줄 알고 심한 공포에 떨면서 별생각이 다 들었지만 주인공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배는 도착하였지만 주인공에 대한 제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가끔씩 이런 침몰 사고 소식이 들리기도 하는데 이런 사건 사고들은 어떤 인연으로 오는 것인지요.

답변 내가 가끔 그런 소릴 합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공부하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될 것을…." 하고 말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그 소용돌이치는 물과 내 마음과 둘이 아니어서 그냥 물이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럼 가라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도 살아 있는 저 용신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러면 내 마음과 둘이 아닌 까닭에 그 소용돌이의 파도는 없어질 거란 말이죠. 순간적으로 없어져요. 그럼으로써 그 생명들을 다 앗아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물이 둘이 아니라면 자기를 자기가 죽일 수는 없거든요.

또 우리가 미리 그렇게 될 줄 알고 그 마음을 내 주면 될 거를, 미리 그럴 줄을 알겠느냐 이겁니다. 미리 그럴 줄 모르죠, 모두. 그래서 가정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항상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럴 때 그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즉 도둑이 든다든가 뭐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때 '그게 아주 안 일어나게끔 너만이 해결할 수 있잖아.' 하고 진을 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레이더망에, 인간의 이 세포가 법계거든요. 이 법계의 생명들은 다 나고 들면서 그 레이더망처럼 그렇게 대치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해 놓으면 거기에서 나쁜 거는 안 되고 좋은 일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미리미리 영리하게 대치할 수 있는 마음으로써 해 놓고 지켜보는 겁니다. 지켜보지 않아도 '아, 어느 때에 자꾸 그런 일이 생기더니 안 그러더라.' 이런 게 나오게 되죠. 그럼 그게 체험이거든요. 우연히가 아니에요.

인간의 세계에서는 우연이라는 건 조금도 없습니다. 일분일초도, 또 아주 조그마한 것도, 티끌만 한 것도 거저도 없고 우연히도 없어요. 그러니깐 우연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로부터 나온 거니까. 자기로부터 나온 거니까 자기로부터 해결해서 맑은 걸로 쓰는 겁니다. 내가 맑은 거라는 거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모든 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애고, 뭐, 아픈 거, 유전성, 영계성 이런 말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내 앞에 자꾸 닥치니깐 말입니다. 또 안에서 그런 일이 있어도 자꾸 빗나가게 만들어서, 눈이 컴컴하게 만들어서 지옥에 빠지게 만들고 이러거든요. 구덩이에 빠지게 해서 사기를 당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등등 가져오게 만들죠.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를 내 주인공에다 놓고 다시 밝게 마음을 바꿔 놓음으로써, 그것이 그렇게 진탕 눈이 컴컴해서 막 가지 않게 됩니다. 마음을 일으켜야 법이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평등 자체가 돼 버려요, 그냥. 그래서 마음을 내지 않으면 부요, 마음은 냈다 하면 자예요. 그런데 마음을 내지 않으면 '자(子)'가 '부(父)'로 하나가 되고, 마음을 냈다 하면 '부'가 '자'로 하나가 돼서, 하나로만이 돌아가지 둘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의 근본 정신계, 정신계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낼 수 있는 거고, 마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육체가 움죽거릴 수 있고, 육체가 움죽거리기 때문에 생산을 해낼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이렇게 생길 거 같다 그러면 '그렇게 안 생기게 하는 것도 너뿐이야.' 하고서 그냥 믿으면은 이유가 없어요. 믿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해 놓고 말아 버리는 거지, 믿으니까.

그런데 믿지 못하면 맡겨 놓고도 알쏭달쏭 알쏭달쏭 하니까 이것이 서류가 갔다 왔다 갔다 왔다 하다가 흐지부지되는 거죠.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마음먹기에 달린 건데 결정적으로 들어가야 할 문제가 들어가지 못하게 거죽에서 빙빙빙빙 돌다가 흐지부지되는 것이 바로, 안 된다고 애원하고 그러지만, 그건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이지, 누구 한탄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